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04호 / 01월 20일

중국의 금년도 금융부문 개혁과제

1. 개요

- 중국 정부는 금년도 금융체제개혁의 과제로 △은행산업의 재산권 개혁, △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, △자본시장의 발전과 환율변동의 자율성 확대 등을 지적함.
- 특히 이 중 국유은행의 주식제 개혁을 가속화 하고, 은행 내부적으로 경영효율성과 대출시스템의 개혁에 주안점을 둘 것임.
- 디플레이션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정책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며, 특히 인민은행이 금리조절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
2. 금융체제개혁의 과제

- 금년도 중국의 금융개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임.
- 첫째, 금융기관의 개혁으로 국유은행을 주식제 은행으로 개조하고, 중소은행은 외국자본과 국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함.

- 국유은행의 개혁은 먼저 재산권을 개혁하고,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한 다음 증시에 상장하는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.
-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국유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데, 주식제 은행으로의 개편과 은행내부의 경영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.
- o 은행의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고, 내부적인 자산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. 특히 투명성 제고와 국제기준에 맞는 재무회계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.
- o 은행 스스로 대출시스템을 개선하고, 개인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함.

□ 두 번째 과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문제임.

-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근 부실채권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, 단기적으로 금융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임.
- 그러나 부실채권 비율이 감소한 원인이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잘 했다고 기보하는 순조로운 경제성장에 기인하는 바가 큼.
- o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1년말 기준으로 연초대비 3.92% 포인트 하락하였으며, 금년에는 그 낙폭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됨. 따라서 전체 자산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도 20% 내외에 머물 것으로 추산됨.

□ 셋째, 자본시장의 발전과 환율변동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.

- 현재 중국의 금융산업은 은행업은 거대한 반면, 증권업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발달은 매우 취약함.
- o 1992-2001년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7,755억 원인 반면,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총액은 8조 6,000억 원이었음.

- 지난 12월부터 해외기관투자자의 중국 증권투자가 가능해졌는바,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중국 증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인민폐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환율변동밴드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을 늘리고, 향후 인민폐가 자유태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3. 금융정책의 과제

□ 금년도 금융정책의 목표는 통화량 증가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, 내수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임.

- 1996~2001년 GDP와 통화공급량(M2)은 각각 8.1%와 17.3% 상승했으나, 소비자물가는 1.69% 증가에 그침.
- o 금융 당국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 절대적인 통화공급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.
-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바 중앙은행이 자율적인 금리조절 권한을 가져야 함.
- o 다이상룽(帶相龍) 前 인민은행장은 인민은행이 안정적인 금융정책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, 적절한 금융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.

□ 한편, 중국정부는 금년에도 확대재정정책을 지속시킬 것이지만,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.

- 이는 지난 수년간 확대재정정책이 거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,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재정적자 측면에서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임.(***)